

2025년 을사년 한민족의 국운

2025년은 을사(乙巳)년, 푸른 뱀(青巳)의 해다. 성경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 또한 뱀은 신화학적으로 풍요와 다산, 무한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리고 뱀은 산 것만 먹고 사는 청결함을 지녔고 일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고 새롭게 갱신한다. 특히 올해는 푸른 뱀의 해이기에 푸른색은 신뢰와 평화를 상징함으로 한반도에서 남북간에 양측의 신뢰를 앞세운 평화적인 물질·인적 교류를 나날 수 있겠다.

노스트라다무스와 여러모로 비견되며 또한 같은 시기에 살았던 이가 조선의 남사(南師古) 선생이다. 주역을 깊이 연구하여 천문 지리에 통달한 남사고 선생이 남긴 격암유록에서 을사년과 관련된 예언을 살펴 본다.

먼저 격암유록 『未中運(말중운)』을 소개한다.

無窮辰巳好運(무궁진사호운)으로 三日兵火萬國統合(삼일병화만국통합) 四十五宮春秋壽(사십오궁춘추수)는 億萬年之經過(억만년지경과)로서 死之征服永生者(사지정복영생자)는 脫劫重生修道者(탈겁중생수도자)라

(해석) 진사(辰巳=갑진 을사)에 호운을 맞게 되나니 정도령은 무궁한 조화의 권능이 있는 감로해인을 임의 용지하시어 삼일(三日)만에 병화(兵火)를 진압하시고 만국을 통합하느니라. 사십오궁의 세월은 억만년을 지나왔으나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얻은 자는 탈겁중생(脫劫重生)한 수도자(인간의) 탈을 벗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이니라.



▲ 현대대세를 오선위기(五仙圖)의 기령(氣靈)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 중략 - 비독을 마치고 판이 헤치면 판과 비독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니 『道典』

忠信義士入金城(충신의사임금성)에 眞珠門(진주문)이 玲瓏(영롱)일세 蓬萊水溢吉地(봉래수일길지)라고 長沙之谷清水山下(장사지곡청수산하) 蓮花培上千年歲(연화대상천년세)에 穀種三豐(곡종삼풍)알리리다 好運(호운)이면 適合(적합)이요 非運(비운)이면 不幸(불행)이라 隨時多變(수시다변)되오리니 絕對預定(절대예정)될수없네

(해석) 충신과 의로운 선비들이 들어가는 금성(金城)은 그 문이 진주로 장식되어 영롱하게 빛나며 봉래산의 영원한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길지이니라. 거기에는 긴 모래의 골짜기 사이로 생명수가 흐르는 삼산산 아래의 연화대에서 천년 수명(壽命)을 누리며 사는 하늘나라 잠깐간 종자들이 감로해인을 먹으며 살아가느니라. 호운(好運)이면 꼭 그렇게 맞을 것이요 호운이 아니면 불행이라. 그때그때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니 절대 예정될 수 없네.

河洛要覽(하락요람) 鄭柳訣(정유결)

龍蛇分爭水火并合 並合 銳鷄同: 龍은 地支의 辰으로 즉 壬辰年인 1952년에는 남북(水火)간에 힘 겨루기를 하겠는데 마치 원숭이와 닭 같구나.

南北割夫子兄弟 殺之撲之 望遠相隔有情 不往蒼生何事: 남북으로 나뉘어 부자 형제지간에 서로 죽이고 때리며 멀리 바라만 보면서 정은 있으나 서로 막혀 있어서 창생들이 서로 왕래하지 못하니 이 무슨 일인가.

哀悽然塗炭萬民何時合 青蛇赤狗黑龍日矣: 애처롭다 도탄에 빠진 많은 백성들이 여는 때에 합할 것인가(統一될 것인가) 青蛇 즉 乙巳年인 2025년, 赤狗 즉 丙戌月인 9월, 黑龍日 즉 壬辰日인 30일에 남북이 통일된다. (* 참고로 격암유록 말운론에도 대동소이하게 "統合之年 何時 龍蛇赤狗喜月也"라고 했다)

萬邦平和何之四女 籌算兩望相交時矣: 세계 만방의 평화가 어찌 사해에 미치지 않으리요. 주신해 보니 남북이 서로 바라만 보다가 교통하는 때로구나.

脫劫衆生極濟塗炭 民喜不自勝乎 其人何人乎 萬民苦待種桃人也: 탈겁중생하여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극진히 구제하니 이 나라 백성들의 기쁨이 어찌 이보다 더하리?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세계만민이 고대하던 종도인이로다.*

출처: 하락요람(河洛要覽) 전문 <https://e-one8899.tistory.com/388>

격암유록 三八歌(삼팔가)

十線反八三八(십선반팔삼팔)이요 兩戶亦是三八(양호역사삼팔)이며 無酒酒店三八(무주주점삼팔)이니 三字各八三八(삼자각팔삼팔)이라

一鮮成胎三八(일선성태삼팔)에 左右相望寒心事(좌우상망한심사)요

兩虎牛人奮發下(양호우인분발하) 破碎三八役事時(파쇄삼팔역사시)에 龍蛇相鬪敗龍下(용사상투패룡하) 吟龍一起無三八(음룡일기무삼팔)에 玉燈秋夜三八日(옥등추야삼팔일)을

십(十)자에 반(反)자와 팔(八)을 합하면 판(板)자가 되고 호(戶)자가 좌우로 둘이면 문(門)자요, 주점(酒店)에서 주(酒)자 없으면 점(店)자가 되어 판문점(板門店)이 되니라. 세 글자의 획수가 각각 팔(八)이 되니 삼팔이 되고 선(線)을 더하면 삼팔선(三八線)이 되니라.

하나의 조선이 잉태(孕胎)하여 삼팔선에 막혀 좌익, 우익으로 나뉘어 서로를 원망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로다.

‘兩虎牛人奮發下(양호우인분발하)’는 산해경에서 말하는 두 마리의 호랑이를 부리는 군자(君子); 「3 1 양호(兩虎; 두 마리의 호랑이) _ 《산해경(山海經)》에 이르기를, “해동(海東)에 군자(君子)의 나라가 있으니, 의관(衣冠)을 갖추고 칼을 차며 짐승을 잡아먹고 두 마리의 큰 호랑이를 부려 옆에 둔다, 사양하기를 좋아하며, 서로 다투지 않는다. 근화초(槿花草: 무궁화)가 있으니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고 했다. - 君子國在 神山下 삼신산하 牛鳴地 우명지」의 주인공. 인류의 엄마 牛(우)인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펼쳐 일어나 「破碎三八役事時(파쇄삼팔역사시); 삼팔선을 깨뜨려 부수는 역사를 할 때」에 용(龍=구세주 하나님)과 뱀(蛇=마귀)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보광 전락을 펼친 용(龍)이 패배한 듯 보이나 신음하던 용(龍)이 한 번 일어나면 삼팔선이 사라지고 정도령의 천지공사로 남북통일이 되리라. 이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리라.

其北 衣冠帶劍 食獸 使二大虎在旁 其人好讓不爭 有薰華草 朝生夕死 《山海經》 [海外東經]

옥등추야(玉燈秋夜)는 가을 밤 하늘의 보름달로 어둠을 밝히는(마귀를 없애고 밝은 세상을 여는) 십오진주(十五眞主=구세주)를 뜻하고 삼팔일은 갑을(三=甲, 八=乙)의 해(日=해)를 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날(봄)을 의미한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300>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서 들어온다”

세상 사람 중에 기(氣)라는 것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공중으로 몸이 떠오. 그게 뭐죠 아세요? 그게 바로 생명력을 50% 이상 몸 안에 채우게 되면 몸이 뜨게 되어 있어요. 날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보통 1m 내지 1m 50cm 정도는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걸 해서 그 정도 되는데 오늘날 여기에 서 여러분들에게 기보다도 더 강한 감

로 이슬성신을 부여주고 있죠? 이 감로 이슬성신을 받으면 더 잘 날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다 날아다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하고 뒤를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승리제단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기는 삶

감사기도(感謝祈禱)

가는 길에 험산준령(險山峻嶺)도 거친 풍랑도 만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무사히 넘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마무리 역사의 일꾼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부딪침 속에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는 자유율법으로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형제 이해와 배려를 배우고 나의 감정과 고집을 꺾고, 또 하루를 무사히 넘어가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 알~랄라~ 곡조 있는 찬송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초초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의 생각을 지우는 '박멸소탕'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더 큰 깨달음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더욱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사건건 불만투성이인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대의에 순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我執)과 아상(我相)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나의 뜻과도 여러서는 부분을 반성하며, 나를 쳐서 낮추고 낮추게 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존심(自尊心)이 마귀라는 것을 알고 나라는 자존심을 죽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되는 비결인 자유율법(自由律法)은 예법(禮法)이요, 군법(軍法)이라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아직도 필멸 살아 날뛰는 자존심을 꺾고 굴복시켜, 이기신 하나님의 신실(信實)한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알게 해 주시고 본래의 하나님을 찾기 위한, 더 나아가 이기신 하나님을 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은 많지만 내 자리가 어딘지 다시 깨닫게 해 주셔서 일탈(逸脫)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본분(本分)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타지(他地)나 외국(外國)에 살고 있는 승리제단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거리가 없이 소통(疏通)하며, 하나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파란 하늘보다 더 넓고 파란 큰 꿈과 소망을, 푸른 바다보다 더 깊고 푸른 대의에 순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기신 하나님처럼 진 지난날의 나의 뜻과도 여러서는 부분을 반성하며, 나를 쳐서 낮추고 낮추게 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 4. 우리나라에 영원무궁도록 풍년들게 하겠다
-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속에 응어리가 진 6·25전쟁을 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엄청난 규모의 재산 손실,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만약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반도 국지전의 성격을 넘어서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어 전 인류가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공감할 하게 되어 있

는 일이다. 이긴자 정도령께서는 절대로 그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이다.

이 공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계정세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완전히 종식시키는 방법으로써의 남북통일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정도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